

# “흥미로운 이야기, 독특한 캐릭터 이끌었다”

## ‘해품달’ 진수완 작가, ‘시카고 타자기’ 오늘 첫방송... 일제 강점기 문인들 이야기 다뤄

“깊은 감성의 멜로 청춘의 울분, 가슴 아픈 사랑 독립 투사의 처절한 동지에, 그들의 비극적인 최후, 그 최후가 현재까지 이어져 온 사연... 한 마디로 규정하기 힘든 드라마입니다. 한 가지로 규정하면 매력을 놓칠 겁니다. 종합선물세트라고 보면 돼요.”

케이블 채널 새 금토드라마 ‘시카고 타자기’를 연출하는 김철규 PD는 5일 열린 제작발표회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드라마는 슬럼프에 빠진 천재 작가 그를 대신해 글을 쓰는 유령 작가, 천재 작가의 열혈팬에서 극성 인터팬이 된 여자 작가의 라이벌들, 그리고 이들을 인연을 하나로 묶는 시카고 타자기, 또 이 타자기에 얽힌 일제 강점기 문인들의 이야기가 한 데 뒤엉킨 작품이다.

이 이야기를 만든 사람은 진수완 작가다. 진 작가는 ‘킬미, 힐미’(2015) ‘해를 품은 달’(2012) ‘경성 스캔들’(2007) 등에서 절묘한 장르 간 혼합으로 시청자의 지지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 이야기의 매력에 빠진 배우들이 바로 유아인·임수정·고경표·곽시양 등이다. 네 배우는 한목소리로 “흥미로운 이야기, 독특한 캐릭터에 이끌렸다”고 말했다.

유아인이 천재 작가 ‘한세주’를, 임수정이 그의 인터팬 ‘전설’을 연기한다.

고경표는 한세주를 대신해 글을 쓰는 유령 작가 ‘유진오’를, 곽시양은 한세주의 라이벌이자 문단의 아이돌 ‘백태민’을 맡는다.

유아인은 “이루래도 로맨스물에서 자주 다루었던 설정일 수 있다. 그래서 더 새롭게 표현하려고 노력 중이다. 작가님과 함께



서울 강남구 일파리얼 팰리스에서 열린 tvN ‘시카고 타자기’ 제작발표회에서 고경표(왼쪽부터), 임수정, 유아인, 곽시양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로 로맨스물 남자 주인공의 타성에 벗어나 새로운 유형의 인물을 보여드리는 것을 속제로 갖고 열심히 연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수정은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후 13년 만에 TV 드라마로 복귀한다. 그는 “대본을 보는 순간 첫눈에 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야기가 흥미롭고 천재 작가와의 관계 또한 신선했다. 게다가 유아인이 출연한다는 데 안 할 이유가 없

었다”고 말했다. 김 PD는 이번 작품 캐스팅에 대해, “네 배우들의 매력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독특하고 각자 색깔이 분명한 배우들이다. 배우들의 색이 드라마에 잘 어울려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캐스팅에 주저함이 없었다”고 했다.

한편, 유아인은 이날 제작발표회를 마친 뒤 입대 관련 논란에 대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제작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워낙 특이한 케이스이고 많은 분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라서 신중하게 결과를 내려고 병무청에서 노력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작품과 군대 중 뭘 선택할 거냐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선택사항이 아니다. 또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따뜻하게 봐달라”고 말했다.

‘시카고 타자기’는 오늘 첫 방송된다. /뉴스시스

# “더 좋은 사람 되도록 노력할 것”

## ‘고등래퍼’ 우승자 양홍원, 과거 일진 논란 ‘친구에게 용서 구해’

케이블 채널 엠넷 예능프로그램 ‘고등래퍼’는 미래 한국 힙합을 이끌어 나갈 재능들을 찾는다는 걸 강조하며 출발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주목받은 건 출연자들의 과거 논란이었다.

일부 참가자들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된 행동들이 온라인에서 까발려졌고, 네티즌은 이를 도마 위에 올려 강하게 비판했다. 이 프로그램 우승자 양홍원(18)도 지난의 대상이 된 출연자 중 한 명이다.

그가 소위 일진으로 불리며 자신보다 약한 친구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었다. 양홍원은 사과했지만, 논란은 방송 내내 계속됐다.

양홍원은 6일 “친구에게 용서를 구했고 지금 그 친구가 용서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미포구에서 열린 ‘고등래퍼’ 우승자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이 일을 계기로 내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홍원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다. 그렇게 많은 욕을 들어본 건 처음이었다. 물론 힘들었다. 힘들었지만, 내가 할 말은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그는 피해를 입은 친구에게 직접 연락했다고 한다. 양홍원은 “그 친구와 만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친구가 다니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며 받아주지 않았다.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있다고는 했지만,

촬영 도중에 받을 생각은 없다고 했다. 그 친구의 연락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연출자인 고익조 CP는 “시즌2에는 참가자들과 더 세심하게 면담해 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고 CP는 “시청자들이 참가자들의 인성에 이 정도로 예민할지 예상 못했다. 보는 분들이 불쾌하지 않게 각별히 신경 쓸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게 이 프로그램의 미덕”이라고 덧붙였다.

논란과 별개로 양홍원은 방송 내내 뛰어난 랍으로 인정받았다. 그는 방송 출연 전부터 한국 힙합계의 신성으로 불렸다. ‘고등래퍼’의 성인 버전인 ‘쇼미더머니’에도 출연해 실력을 인정받았고, 이후 ‘영비’(Yang B)라는 랍네임으로 활동해왔다. 그는 “내 노래로 편안함을 주기 보다는



들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나갈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고 했다. /뉴스시스

## 전북축구협회장배 시군대학 축구대회 내일 개최

‘전북축구협회장배 시군대학 동호인 축구대회’가 내일 열린다.

6일 전북축구협회에 따르면 ‘제1회 전북축구협회장배 시군대학 동호인 축구대회’가 오는 8일부터 이틀간 정읍공설운동장 등 5개 구장에서 펼쳐진다.

지난해 6월 엘리트 축구와 생활축구가 통합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클럽 회원들이 참여한다.

총 6개 부문(청년부·장년부·노장부·노년부·황금부·여성부)에 42개 팀이 출전해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뽐내게 된다.

우승팀과 준우승팀에는 트로피와 FIFA U-20 월드컵 개막 경기 티켓 등이 수여된다.

유종의 전북축구협회 전무이사는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 배구 U-19 대표팀, 일본에 0-3 패

한국 남자 유스배구대표팀(U-19)이 아시아 정상 문턱에서 무너졌다.

한국은 지난 5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제11회 아시아유스 남자배구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일본에 0-3(17-25 18-25 19-25)으로 패했다.

준결승에서 폴세트 점점 끝에 7회 연속 우승을 노리던 이란을 따돌린 한국은 18년 만의 정상을 목전에 뒀지만 일본의 벽에 가로 막혔다.

한국은 세 세트 모두 20점도 넘기지 못했다. 이란전에서 41점을 퍼부는 임동현은 8점에 그쳤다. 임성진은 10점을 올렸다.

라이트 공격수 임동현과 세터 최익제, 리베로 박경민은 포지션별 최고 선수로 선정됐다.

일본은 미야우라 겐토가 19점으로 공격을 주도했다.

미야우라는 대회 MVP의 영예를 안았다. 일본은 이번 대회에서 치른 7경기에서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경기력으로 사상 첫 우승을 차지했다.

/김민근 기자

## UFC 김동현, 6월 콜비 코빙톤과 대결

‘스턴건’ 김동현(36)이 레슬러 출신의 콜비 코빙톤(29·미국)을 상대로 일전을 치른다.

세계 최대의 종합격투기 단체 UFC는 6월17일 싱가포르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UFC 파이팅 나이트 싱가포르 대회의 추가 대진을 발표했다. 김동현의 상대도 결정됐다.

김동현은 지난 2008년부터 활동해 온 UFC 베테랑 파이터이다.

뛰어난 그래플링 기술과 타격 기술로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유형의 선수다. 통산 전적은 22승 7패다.

코빙톤은 뛰어난 레슬러로 알려져 있다. 이번 경기를 통해 김동현의 그라운드 실력을 직접 시험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현 웰터급 랭킹 7위 김동현을 꺾은 후 향후 챔피언을 꿈꾸고 있다. 코빙톤은 통산 전적은 11승 6패다.

신장은 180cm로 김동현보다 5cm 작다. 객관적인 전력이나 커리어는 김동현이 앞선다.

그러나 코빙톤은 그래플링 기술이 뛰어나고, 그라운드에서 타격으로 이어지는 기술이 좋아 방심은 금물이다.

/김민근 기자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